

# 설교

“한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”  
(Jesus seeks Zacchaeus)



주님 품 안에서...  
누구나 행복한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.

1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.

2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. 그는 세관장이고, 부자였다.

1 Jesus entered Jericho and was passing through.

2 A man named Zacchaeus lived there. He was a chief tax collector and was very rich.

7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,  
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.

“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.”

7 All the people saw this. They began to  
whisper among themselves. They said,  
“Jesus has gone to be the guest of a  
sinner.”

3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, 무리에게 가려서, 예수를 볼 수 없었다.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.

3 Zacchaeus wanted to see who Jesus was. But he was a short man. He could not see Jesus because of the crowd.

4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, 뽕나무에 올라갔다.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.

4 So he ran ahead and climbed a sycamore-fig tree. He wanted to see Jesus, who was coming that way.

5 예수께서 그 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,  
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.

“삭개오야, 어서 내려오너라. 오늘은  
내가 네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.”

5 Jesus reached the spot where  
Zacchaeus was. He looked up and said,  
“Zacchaeus, come down at once. I must  
stay at your house today.”

8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.

“주님, 보십시오.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.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, 네 배로 하여 갚아 주겠습니다.”

8 But Zacchaeus stood up. He said, “Look, Lord! Here and now I give half of what I own to those who are poor. And if I have cheated anybody out of anything, I will pay it back. I will pay back four times the amount I took.”

9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.

“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.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.

10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.”

9 Jesus said to Zacchaeus, “Today salvation has come to your house. You are a member of Abraham’s family line.

10 The Son of Man came to look for the lost and save them.”



## 시편 105:22

22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게 하며, 원로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게 하였다.

22 Joseph was in charge of teaching the princes. He taught the elders how to think and live wisely.

찬양

내 이름 아시죠

He Knows My Name

나를 지으신 주님

내 안에 계셔

I have a maker

He formed my heart

처음부터 내 삶은  
그의 손에 있었죠

Before even time began  
my life was in His hands

내 이름 아시죠

내 모든 생각도

He knows my name

He knows my every thought

내 흐르는 눈물  
그가 닦아 주셨죠

He sees each tear that falls  
and He hears me when I call

그는 내 아버지  
난 그의 소유

I have a father,  
He calls me His own.

내가 어딜 가든지  
날 떠나지 않죠

He'll never leave me  
no matter where I go



내 이름 아시죠

내 모든 생각도

He knows my name

He knows my every thought

내 흐르는 눈물  
그가 닦아 주셨죠

He sees each tear that falls  
and hears me when I call